

2015 / 10 / 19 (MON)

인터넷 / 소프트웨어 / 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업종별 Comment

전일 국내 인터넷/SW 섹터는 1%가량 상승. 중국의 3Q GDP 성장률이 7%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가 부양책 기대감에 투심 호전.

NAVER의 강세로 IT서비스 업종이 2% 가량 상승하며 지수 상승 견인.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사람인에 이차일, 조이시티, 위메이드, 코나아이 강세. 반면 기관의 매도세로 NHN엔터 약세.

종목별로는 광저우 바이론애셋매니지먼트와 골프시물레이터 독점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골프존이 11.6% 상승 마감.

국내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296.38	-0.2%	-13.2%	3,286 억	1,488 억
(코) 인터넷	19,204.36	-0.5%	0.7%	-45 억	-45 억
(코) IT S/W&SVC	2,215.28	0.2%	10.8%	-113 억	-79 억
(코) 소프트웨어	327.05	0.3%	33.3%	-39 억	-48 억

해외 Internet/Software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47.73	0.2%	0.5%
MSCI Internet	180.46	0.7%	18.1%
MSCI IT Services	124.71	0.4%	5.9%
MSCI Software	169.23	0.9%	3.4%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587,000	3.2%	-17.6%	225 억	-66 억
카카오	115,100	-0.8%	-6.9%	-43 억	-50 억
한국사이버결제	31,450	-0.2%	17.8%	1 억	0 억
KG이니시스	18,450	0.5%	3.1%	-1 억	-1 억
KG모빌리언스	15,300	-1.6%	5.2%	-1 억	0 억
사람인에이치알	21,250	5.5%	89.7%	-1 억	8 억
KTH	9,260	2.8%	21.0%	0 억	0 억
아프리카TV	29,550	-1.7%	10.5%	-10 억	-2 억
SK컴즈	7,470	-2.5%	12.3%	0 억	0 억
KT뮤직	5,590	0.0%	3.7%	1 억	0 억
다날	9,890	0.7%	22.1%	4 억	-
에스24	11,700	-2.5%	67.9%	-2 억	-1 억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695.32	0.3%	31.0%
Facebook	97.54	1.6%	25.0%
Tencent	146.60	1.1%	30.3%
Baidu	151.00	0.5%	-33.8%
Yahoo	33.37	-0.3%	-33.9%
LinkedIn	197.90	0.2%	-13.8%
Twitter	31.15	4.8%	-13.2%
Weibo	15.57	13.4%	9.3%
SINA	45.96	5.4%	22.9%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95,000	0.0%	0.5%	9 억	17 억
SK	269,000	1.1%	26.0%	-29 억	-69 억
다우기술	26,450	0.6%	121.3%	-1 억	0 억
포스코 ICT	5,380	-1.3%	1.5%	0 억	0 억
신세계 I&C	130,000	-1.9%	16.1%	4 억	-7 억
동부	6,170	-0.2%	145.8%	0 억	-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50.39	0.2%	-6.3%
TCS	2,473.75	0.2%	-3.3%
Accenture	103.01	0.7%	15.3%
HP	28.86	0.3%	-28.1%
Infosys	1,094.90	-0.2%	11.0%
Wipro	577.35	0.0%	4.0%
NTT Data	5,810	-1.0%	28.7%
Fujitsu	578.20	2.1%	-10.3%
CSC	64.32	0.3%	2.0%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엔씨소프트	3,754 억	카카오	-43 억
NAVER	225 억	SK	-29 억
NHN엔터	20 억	위메이드	-15 억
삼성에스디에	9 억	골프존	-11 억
유비케어	8 억	이니텍	-10 억
파티게임즈	4 억	아프리카TV	-10 억
유비벨록스	4 억	선데이토즈	-8 억
신세계 I&C	4 억	넥슨지티	-7 억
다날	4 억	한국정보인증	-6 억
컴투스	2 억	웹젠	-6 억
액토즈소프트	2 억	더존비즈온	-5 억
코나아이	1 억	한국전자인증	-5 억
크레듀	1 억	조이시티	-3 억
인피니트헬스	1 억	민앤지	-3 억
한국사이버결	1 억	오픈베이스	-2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96,500	0.0%	8.0%	3,754 억	1,200 억
EA	113,600	0.4%	-5.7%	2 억	0 억
NHN엔터테인먼트	57,300	-1.7%	-32.3%	20 억	-11 억
웹젠	31,900	-1.2%	9.8%	-6 억	9 억
위메이드	46,850	1.4%	23.9%	-15 억	6 억
선데이토즈	13,600	3.0%	-20.9%	-8 억	7 억
액토즈소프트	39,400	0.5%	17.6%	2 억	-1 억
게임빌	70,400	0.1%	-41.7%	-1 억	0 억
네오위즈게임즈	17,800	-1.1%	-21.8%	0 억	0 억
넥슨지티	13,100	-1.5%	2.7%	-7 억	0 억
데브시스템즈	31,550	1.4%	-33.9%	0 억	0 억
조이시티	27,050	5.3%	33.9%	-3 억	1 억
파티게임즈	44,400	3.5%	70.4%	4 억	-3 억
조이맥스	23,850	0.4%	-12.6%	0 억	3 억
한빛소프트	6,800	0.0%	17.4%	0 억	-
와이디온라인	8,950	0.0%	93.7%	-2 억	-

Games	close	1D	YTD
Nintendo	22,845	4.0%	81.2%
EA	71.71	1.0%	52.5%
Blizzard	34.17	1.1%	69.6%
NEXON	1,624	2.9%	44.4%
NAMCO	2,965	0.0%	15.6%
King	147.8	1.1%	-3.8%
Konami	2,773	1.9%	24.9%
Square Enix	3,230	1.7%	28.8%
GungHo	378	1.6%	-14.3%
DeNA	2,300	2.0%	59.1%
Sega	1,269	1.4%	-18.4%
Take-Two	31.59	-0.9%	12.7%
Zynga	2.46	-2.0%	-7.5%
Ubisoft	24.93	1.5%	64.3%
Gree	598	4.4%	-17.4%
Changyou	18.59	-0.2%	-32.1%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엔씨소프트	1,200 억	SK	-69 억
삼성에스디에	17 억	NAVER	-66 억
웹젠	9 억	카카오	-50 억
코나아이	8 억	NHN엔터	-11 억
사람인에이치알	8 억	한국정보인증	-8 억
선데이토즈	7 억	신세계 I&C	-7 억
위메이드	6 억	한글과컴퓨터	-4 억
조이맥스	3 억	골프존	-3 억
민앤지	2 억	벅스	-3 억
유비벨록스	2 억	아이크래프트	-3 억
더존비즈온	2 억	파티게임즈	-3 억
조이시티	1 억	아프리카TV	-2 억
브리지텍	1 억	처음앤씨	-2 억
비트컴퓨터	1 억	크레듀	-2 억
인프라웨어	0 억	원스	-1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코나아이	40,700	1.2%	20.8%	1 억	8 억
더존비즈온	19,800	-2.2%	112.9%	-5 억	2 억
한글과컴퓨터	21,700	-3.1%	7.4%	-2 억	-4 억
골프존	102,800	11.6%	307.1%	-11 억	-3 억
안랩	43,300	-0.9%	20.3%	-2 억	0 억
한국정보인증	15,050	-4.7%	333.1%	-6 억	-8 억
슈프리마	22,100	0.5%	-13.2%	0 억	0 억
갤럭시아컴즈	6,070	-1.1%	124.0%	0 억	0 억
지트리비앤티	10,400	0.5%	201.4%	0 억	-
MDS테크	23,900	0.6%	15.5%	0 억	0 억
오상자이엘	11,950	-0.4%	-10.2%	0 억	-
인피니트헬스케어	10,600	-3.2%	46.4%	1 억	-
케이사인	3,170	-0.8%	28.9%	-1 억	0 억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7.51	1.1%	2.3%
Oracle	37.37	-0.5%	-16.9%
SAP	75.34	1.7%	8.2%
EMC	27.77	-0.1%	-6.6%
Salesforce	78.77	1.4%	32.8%
Adobe	88.67	2.2%	22.0%
Vmware	69.62	1.7%	-15.6%
Intuit	93.62	1.3%	1.6%
Symantec	20.71	0.3%	-19.3%
CA	28.92	0.1%	-5.0%
Citrix	75.47	0.8%	18.3%
Autodesk	52.04	-0.2%	-13.4%
Synopsys	48.43	0.8%	11.4%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엔씨소프트	0.0%	최근이슈

넥슨, 엔씨와 '어정정한 관계' 정리, 제3의 주요 주주 등장?

넥슨이 엔씨소프트와의 '어정정한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넥슨은 15일 보유 중인 엔씨소프트 지분 330만주(15.08%) 가량을 블록딜 방식으로 팔았다. 주관사 모건스탠리를 통해 지분 할당이 완료됐으나 대상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중 일부인 44만주를 김택진 대표가 사들였다. 이번엔 엔씨소프트의 제3의 주요 주주가 등장할 수 있어 주목된다.

업계에선 넥슨이 내년 3월 엔씨소프트 사내이사 5명의 임기가 만료될 때 다시 한번 경영참여 의지를 보일 것이란 관측과 함께 엔씨소프트 최대주주 유지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 지분을 정리한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넥슨의 지분 정리 관측이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엔씨소프트는 김 대표의 지분 취득과 관련해 "주주가치 극대화와 책임경영을 위한 것"이라며 "넥슨과 함께 한국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시로는 국민연금이 엔씨소프트 최대주주다. 12.22%(268만주) 지분을 확보 중이다. 뒤이어 김택진 대표가 11.99% 지분율로 2대주주다.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가 넥슨이 내놓은 나머지 지분 286만주를 한꺼번에 취득할 경우 엔씨소프트 최대주주 자리를 꿰찰 수 있다. 다만 넥슨의 사례에서 보듯이 김택진 대표의 엔씨소프트 경영 의지가 확고해 시세차익 외엔 최대주주로서 실익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분할 매수가 이뤄졌다면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자리를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이 블록딜에 참여해 지분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도 있고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제3의 주요 주주가 등장할 수 있다. 이뎨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중국 텐센트 등이 거론된다.

국민연금은 엔씨소프트 주식을 한주라도 추가 매입할 경우 공시 의무가 있다. 여타 기관이나 사업자가 5% 이상 엔씨소프트 지분을 취득했다면 공시가 이뤄진다. 한편 넥슨 일본법인 공시에 따르면 엔씨소프트 지분의 블록딜 규모는 6051억원이다. 지분 매각 가격은 주당 18만3000원. 주식 양도일은 16일, 결제일은 오는 20일이다.

넥슨-엔씨 결별에 가려진 '리니지' 대형 업데이트

넥슨이 엔씨소프트 지분 전량을 내놓자 업계가 떠들썩하다. 업계는 넥슨의 이번 지분 매각을 엔씨소프트와 개발 협업에 실패하고 경영참여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결단으로 보는 분위기다.

원·엔 환율도 두 회사의 결별을 도왔다. 지난 2012년 8000억원 규모의 지분 거래도 엔화로 이뤄졌는데 그동안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 환차익을 거두게 됐다. 본사인 넥슨 일본법인은 62억엔(약 588억원)의 매각차익을 예상했다. 사실상 환율이 자칫 장기전으로 갈 수 있었던 두 회사의 불편한 관계에 종지부를 찍게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엔씨소프트가 이 같은 대외 이슈로 주목받고 있지만 회사 내부는 다른 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최대 매출원인 '리니지'에 초대형 업데이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2008년 시즌3 '시간의 균열' 이후 7년 만에 공개하는 정규 에피소드 시즌4 '부활의 문'이 추가됐다.

리니지는 이벤트 진행 여부만으로도 분기 매출에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엔 여러 번의 프로모션 진행과 업데이트 효과로 967억원의 사상 최대 분기매출을 거둔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엔씨소프트도 7년 만의 리니지 대형 업데이트를 발판삼아 상당 폭의 실적 개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리니지 분기매출 1000억원 돌파도 노려볼 만한 목표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업데이트 이후 리니지 내 최초 90레벨대 이용자 출현을 전망했다. 기존보다 많은 경험치를 주기 때문이다. 각 직업 최강의 무기들도 다수 등장한다. 초반 콘텐츠에도 변화를 줬다. 게임 플레이 동선과 몬스터(괴물) 배치 등을 개선해 빠른 성장을 지원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벤트 역시 대규모로 진행한다. 엔씨소프트는 이용자가 홈페이지 미니 게임에 참여할 경우 최대 +9 무기와 +8 방어구를 지급한다. 휴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유치를 위한 무료 이용권(7일 15시간)도 풀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처럼 실제 게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는 경우는 거의 처음인 상황이다. 무료 이용권을 주는 이벤트도 거의 한 적이 없다"며 "그만큼 파격적인 이벤트"라고 평가했다. 또 현재 리니지 반응에 대해선 "일단 할 것이 많아하니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감지된다"며 "전주대비 액티브 유저 등 이용자 지표가 상승했다"고 전했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골프존	11.6%	최근이슈

골프존, 골프시뮬레이터 200대 공급, 중진출 교두보 마련

골프존이 중국 골프시뮬레이터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골프존은 15일 중국 상하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광저우 바이론애셋매니지먼트와 골프시뮬레이터 독점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식에는 골프존 장성원 대표이사, 글로벌사업본부 이민섭 본부장, 바이론애셋매니지먼트 첸롱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골프존은 이번 계약에 따라 바이론애셋매니지먼트에 내달 15일부터 2017년 11월14일까지 2년간 최소 200대 규모의 골프시뮬레이터를 공급하고 바이론애셋매니지먼트는 중국 광둥성 지역에 독점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첸롱 바이론애셋매니지먼트 대표는 "골프존의 뛰어난 품질과 지원 덕분에 골프 시뮬레이터가 중국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언제 어디서나 골프를 즐기길 원하던 중국의 골퍼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원 골프존 대표는 "골프존의 기술력과 바이론애셋매니지먼트의 비즈니스 역량이 만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이번 계약은 골프존이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후 운영 방안 논의 및 세부 합의 등을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골프시뮬레이터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바이론애셋매니지먼트의 창립자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애자일프로퍼티홀딩스의 지배주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골프존은 앞으로 중국 내 골프 시뮬레이터 공급을 위한 애자일프로퍼티홀딩스와의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해외	Oracle	-0.5%	최근이슈

오라클, BI도 클라우드로, 출시 1개월만에 200여고객 확보

16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홍성욱 한국오라클 상무는 현재 오라클의 비즈니스인텔리전스(BI) 제품을 사용 중인 국내 350여개사를 대상으로 'BI 클라우드 서비스(BICS)'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국내 한 금융업체와 통신사가 이를 도입한 상태라며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BI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오라클의 BI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식 버전은 출시된지 한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전세계적으로 200여개의 고객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금융업체와 통신사가 각각 경영정보분석 및 B2C(기업 대 개인) 마케팅을 위한 용도로 이를 도입, 활용하고 있다.

새롭게 오라클 BI클라우드 서비스는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DB) 클라우드와 통합돼 있으며, 진보한 셀프서비스 BI, 데이터 탐색 및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든 가장 적절한 데이터만을 선별적으로 수집해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셀프서비스 BI가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라클 BI 클라우드 서비스는 분석보고서 작성 뿐만 아니라 데이터 로드(적재), 분석 모델링 영역까지 현업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비주얼 애널리저(Visual Analyzer)라는 데이터 디스커버리(검색) 기능이 포함돼 있어, 용자는 복잡한 데이터 조합, 다양한 시각화 도구, 필터링 방법, 검색 등의 기능을 활용이 가능하다. 홍 상무는 "기존에 BI는 IT부서가 도맡아서 수행해 왔지만, BI 클라우드 서비스는 현업 사용자가 관련 매뉴얼이나 간단한 동영상 보고 직접 분석 모델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상, DB서버나 BI 서버 등 하드웨어 비용 및 운영체제(OS), DB,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BI 등 별도의 소프트웨어(SW) 구매가 필요 없고, 신청 즉시 사용이 가능해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BI 클라우드 서비스는 오라클 이외에도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 MS 등 다양한 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특히 AWS의 경우 최근 '퀵사이트'라는 BI 서비스를 한 달에 단 9달러(사용자 1명당)에 출시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상무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1만여 고객이 오라클 BI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만든 것과 이를 처음 만든 업체와는 차이가 클 것"이라며 경쟁 우위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BI는 전사보다는 부서 단위의 프로젝트가 많아지는 추세"라며 "여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형태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BI 고객은 물론 중소기업(SMB), 대기업의 현업 부서 등을 타깃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19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10월 1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0월 1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